



즉시 배포용: 11/4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## CUOMO 주지사, 2015년 첫 10개월 동안 2500여만 달러의 상실 임금 회복 발표

### 근로자들에게 돌려준 임금이 사상 최고 기록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2015년 첫 10개월 동안 뉴욕주가 2510만 달러를 회수하여 애초부터 적정 최저임금, 초과근무 수당 또는 후생 수당을 받지 않은 약 22,600명의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 페이스로 가면 뉴욕주는 2014년 27,000명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준 3020만 달러를 초과할 것입니다.

"뉴욕주는 공정한 하루치 일에 공정한 하루치 급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근로자 착취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"라고 **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** "우리는 법률을 무시하는 비양심적 고용주들을 계속 단속하고 직원들이 번 것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."

Cuomo 지사는 취임한 이래 뉴욕주에서의 근로자 착취 근절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 뉴욕주 노동부의 근로자보호과는 임금 절도 조사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속하게 완료하여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을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현재 80 퍼센트 이상의 조사가 6개월 안에 완료되었습니다.

아래에 돌려준 임금 2510만 달러의 지역별 명세가 있습니다:

#### 2015년 1월 - 2015년 10월

지역	지불	지급받은 인원 수
----	----	-----------

\*잔여 148만 달러는 여러 지역에 걸친 전주적 조사를 통해 지급됩니다.

주 노동부 장관 대행 **Roberta Reardon**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: "뉴욕주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에 전념합니다. 어떤 액수의 임금 절도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본인은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"

Cuomo 지사는 또한 임금 절도, 인신매매, 보복, 불안정하거나 비위생적인 근로 조건, 불안정하거나 비계획적인 근로 시간 및 용품, 훈련 또는 유니폼에 대한 불법적 공제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희생 당하는 방식들과 대항하기 위해 근로자착취 근절

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습니다.

이 유례 없는 전주적 태스크포스는 10개 주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, 고용주 비준수율이 가장 높고 근로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업종에 단속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. 지난 달에 주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절도 및 기타 위반 사항을 알장서 진정할 자신감을 주고 조사 마무리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반보복대와 중재단을 발표하였습니다. 태스크포스는 10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몇 번 더 만나 권고안을 만들 것입니다.

최저임금 또는 근로자착취 혐의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진정을 제기하려는 분들은 근로자착취 태스크포스 핫라인에 전화해야 합니다: 888-469-7365.

뉴욕주에서의 임금 착취 회복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:  
[www.labor.ny.gov/wagetheft](http://www.labor.ny.gov/wagetheft).

###

더 많은 뉴스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